

바닷가의 고마운 사람들

배움의 庭園

임효경
완도중 교장



5월 찬란한 햇살이 온 대지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쌀쌀맞아서 더 반가운 햇살입니다.

완도 청해진항의 여름은 바닷바람으로 그렇게 뜨겁지 않고, 푸르른 완도의 수목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 울창하여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줍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완도는 ‘올해 왔다가 올며 간다’고 합니다. 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정말 하마터면 눈물을 보일 뻔 했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이 웃게 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갈 때는 분명 눈물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올거냐, 언제 또 해양치유의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까?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느라 나 자신도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교직생활 돌아보기를 할까 합니다. 그 지난한 세월 중에 나와 함께 학교 가는 길에 동행해 준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38년 전 11월 여천 화양중이 나를 부를 때, 독일 유학을 준비하던 서울 남산에서 바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대신, 텅텅거리는 완행버스를 타고, 마침내 도착한 나진마을, 아버지 등을 보며 바닷가 언덕 위 학교 가는 돌길을 걸어간 장면이 내 교직생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보니, 바닷가에서 시작한 ‘나의 교직 생활’ 스토리가 여러 바다를 거쳐 완도 청해진항 바다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화양중 앞 나진 바다는 말없이 나의 외로움과 한숨을 받아주었고, 나의 눈물과 땀을 씻어주었고, 나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었습니다. 바다는 그 모든 것을 안아 줄 만큼 품이 넓은 존재였습니다. 그곳에서 눈이 까맣고 어여쁜 쫓꼬마한

아이도 만났고, 아이들과 씨름하듯 수업하느라 지치고 속상하여 울곤 했던 초짜 교사를 위로해 주던 우리 반 반장 아이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아이 엄마들이 되어, 나와 같이 늙어가며 인생을 이야기 하는 동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절은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다는 완도 노화 바다였습니다. 전남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특별한 경험은 섬마을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10여년 경력을 쌓으며, 육지에서 매일 1시간도 넘는 출퇴근 길 위 생활은 육체적으로 힘

오늘은 나의 교직생활 돌아보기를 합니다. ... 초짜 교사를 위로해주던 반장, 카폴로 섬마을 생활을 같이했던 선생님들 ... 가장 진한 아픔과 그리움이 머문 섬마을 학교생활도 이제 추억의 한 모서리에 담겨있습니다. 섬마을 생활은 내 교직 성장의 디딤돌이었습니다. ...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들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했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던 차, 완도 노화고등학교 근무를 명령받았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섬마을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먹었지만, 섬마을 학교도 녹록치는 않았습니

다. 매주 월요일 새벽 5시에 만나 카폴하고 다녔던 ‘운명의 공동체’ 생활 같이 한 선생님들이 참 그립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밖에서 돌아보니, 참 그리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섬마을 선생님을 노래한 트로트도 있지만, 바닷가 마을엔 애잔하고도 끈끈한 정서가 묻어 있어서, 그 생활은 잔잔한 슬픔과 아픔이 바탕이 됩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지만, 좁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속속들이 다 알아버리는 속사정들로 인하여, 답답함을 느끼지요. 가장 진한 아픔과 그리움이 머문 섬마을 학교생활도 이제 추억의 한 모서리에 담겨있습니다. 4년간 섬마을 생활은 내 교직 성장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다는 장흥 안양팔깎 바다입니다. 장흥고 4년 근무 중에 2000년도 막 태동한 컴퓨터 메일로 매일 편지를 주고받던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안양 바다가 내려보였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하여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심한 신체장애를 가지신 것을. 그 아이는 누구보다 밝고, 맑고,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생활 지도를 받았습니다. ^^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인식하고 서툴렀던 나를 깨우쳐준 아이였지요. 내 사랑 지현이가 있어 참 좋은 날들에 감사합니다.

5월 내내, 핸드폰 뚜껑을 열면 기분 좋은 사진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어느덧 나와 교직 동료가 된 제자가 나에게 보내준 감사의 꽃다발을 찍은 것입니다. 그 사진을 매일 핸드폰 열 때마다 나만 봅니다. ‘빛나는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빛나는 가난한 시절에 온 힘을 다해 서태지를 사랑하던 꿈 많던 여고생, 나의 교직 생활을 끝까지 동행해 준 친구 같은 제자입니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빛나는 늘 내 곁에 있을 것을 믿기에 너무 좋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국 교류 체험학습’을 제안합니다

기고

이다영
포항시의원



올해로 4번째 광주에 왔다.

지난 2021년 위덕대학 총학생회장 때 모교 교수의 5·18 관련 망언을 대신 사죄하기 위해 처음 찾은 이후로 5·18민주묘지에 헌화와 참배를 이어갔다. 올해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았습다’라는 말을 전하며 44년 전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매년 5·18을 전후해 광주를 방문하면서 이 역사의 현장을 어릴 때부터 접해 본다면 그 무엇보다 훌륭한 민주주의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필자도 교과서, 다큐로만 보던 5·18현장을 세세한 설명을 통해 듣고 보게 되니 그 당시의 비참하고 슬펐던 상황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열사들의 마음이 전해져 직접적 경험의 감동이 더 크게 전해졌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개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시절부터 서로 교류하며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으로 대부분 수도권 놀이공원, 유명관광지를 가고 있다. 이런 기회를 좀 더 교육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시민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동·서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이런 교류를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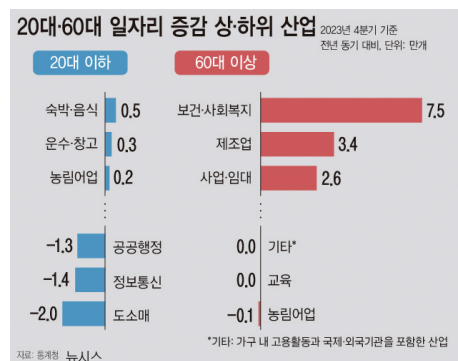
이나 특정 지역에 치우친 체험학습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사회를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쪽의 민주화 관련 경험, 동쪽의 산업화 관련 경험의 상호교류를 통해 대립과 반목이 아닌 이해와 화합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 또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포항지역 학생들이 5·18묘역과 전일빌딩에서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듣고 본다면, 광주지역 학생들이 포스코에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과정을 듣고 이해한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민주화와 산업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해서 체험학습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이점이 분명한 만큼 당장 어떠한 것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지난해만 교육재정기부금이 7조5000억원 남아돌았다고 한다. 이런 남아도는 교육재정을 사회적 통합과 민주주의교육을 위해 쓴다면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 아래 많은 학생이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 사회교육은 단지 교육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에 지역의 일꾼들이 나서주시기를 제안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